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김헌선*

Ⅰ. 제주도 당본풀이의 존재 의의
Ⅱ. 제주도 당본풀이의 신 계보, 본풀이 유형, 신당분포
Ⅲ.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 이해 필요성

Ⅰ. 제주도 당본풀이의 존재 의의

제주도 당본풀이는 일단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 제주도에 당본풀이가 전승되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고,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현실 문맥적 기능을 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인접하고 있는 소수 민족 가운데 마을의 역사를 내세워 구비서사시로 부르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비서사시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민족에게서도 신화와 의례, 사제자와 신 및 청중 등이 통합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다.

제주도 당본풀이는 전승되고 전달되고 수용되면서 마을을 수호하는 '본향한

* 경기대 국문과 교수

집' 또는 '토주관한집'의 신내력을 되새기는 서사시이다. 당본풀이는 흔히 '당매인심방', '당맨심방', '당하님' 등의 마을 사제자가 반드시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등의 마을사람에게 일정한 굿에서 구연한다. 이러한 구연의 기회는 신년과세제, 영등맞이, 마불림제, 시곡만대제 등의 당제 또는 당굿이 된다. 그렇다면 제주도 당본풀이는 살아있는 의례에서 살아있는 사제자에 의해서 구연되는 살아있는 신화이고, 단골들인 청중이 들어 알 수 있는 서사시가 된다.

제주도 당본풀이는 생명성을 지니고 사실이 구체적으로 당본풀이 자체에 있음이 실제적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큰당인 할망당의 분풀이 가운데 한 대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본풀이가 곧 새로 쓰여지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 영험하신 본신은 도걸로 도집사의 신 여래불도 할머님과 삼신할머님으로 천지개벽 이래 육지로터 제주 남방국을 차저오실제 특히 하도리를 번영의 땅으로 지목하시여 좌정하실 곳을 속칭 하도리 당동산으로 정하시고 당도하신 후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혀온 사귀와 병액들을 모라내시고 번영의 태평성대를 이루워 놓았으나 백성들은 미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 하나 그 성의에 보답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를 괘씸하다 여기신 신께서는 속칭 난도려 각시당 앞에 있는 숨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마을에 연거픈 대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생활곤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으므로 (나) 전좌수 의령좌수 묘니오름 결민장 등 마을 유지들이 모두 모여 그 대락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인력으로는 별도리가 없던 차에 뜻밖에도 마을 당동산에 백발노장이 나타나…… (다) 정월 12일에는 과세문안할 것이요 2월 12일에는 영등맞이 백마단속할 것이며 13일에는 일만어부와 일만해녀들을 위하여 희생기도를 올리고 7월 14일에는 백중대제를 올리고 10월 12일에는 희망곡식 거쳐잡아 고장쌀을 위봉하고 성심성으로써 제사를 거행하여…… (라) 수백년 동안에 걸쳐 본당을 주사하신 공이 크신 역대에 봉모루 송씨할머님을 비롯하여 엉밭 최씨할머님, 웃방상 손씨하르바님, 동문가름 김씨할으바님, 섯동내 송씨할머님, 신동내 양씨할머님…… (마) 근간에 이르러 지난 서기 1987년 11월 12일 오전 오시경

괴한에 의한 불의의 방화로 인하여 소실당하였으므로 즉시 당골 회원의 소집을 요청하여 건물은 물론 소중본 되여온 역사적 유물과 기물이 모조리 소실되어 없진 것을 가능한 데까지 모두 보건할 것으로 전원 합의보아 회원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균등 배분에 의한 조속 경비 조달로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복구시켜 놓은 지 이래 수년 동안……1)

다소 인용이 길어졌으나 당본풀이의 생동감 있는 내력을 검토하기 위해서 길게 인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나)(다)(라)(마)의 구분은 자의적으로 필자가 구분한 것이고,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분절했다. 본래 구전서사시처럼 운문으로 구성되는 큰당 본풀이이나 기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망실되고 변질되었음이 파악된다. 본고에서 긴요하게 취급하는 사실은 당본풀이의 생명력이 살아 있고, 아울러서 당본풀이의 역사적 경과가 누적적으로 첨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본풀이의 기록물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는 도걸로 도집사 여래불도 할마님과 삼신할마님이 제주도 밖에 있는 뭍에서 제주도로 찾아오는 과정을 약술하고, 그 신이 하도리 당동산에 좌정했으나 하도리 당골들에게 홀대받자 그들을 징치하는 내용이다. (가)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를 가진 당본풀이의 신내력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외지에 있는 여신이 제주도를 찾아오는 신화소는 흔하게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찾아오는 이유가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는 것이기보다는 번영의 땅으로 하도리를 신이 지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도걸로 도집사 여래불도 할머님과 삼신할머님은 하도리 당동산에 좌정했어도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마을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랬을 때에 좌정한 신은 마을에다 자신의 신성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마을에 저주를 내

1) 이 기록은 구좌읍 하도리 큰당의 왼쪽 벽에 걸려 있는 붉은 천에 검은 글씨의 당본 내력을 옮긴 것이다. 표기법에 차이가 있고 맞춤법이 적절치 못한 대목은 일부 고쳐서 옮겼다.

리게 된다. 그것이 이 당본풀이에서는 '난도려 각시당' 앞에 있는 숨구멍을 막아서 마을의 태평성대를 대흉년으로 바꾸어 놓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에게 자신의 신성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에게 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에서 특별한 사실은 큰당이 있는 당동산과 연계되어 있는 난드려 각시당이다. 대체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당은 마을의 본향당신이 좌정하는 곳과 그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다른 당이 호응하게 마련이다. 여기서도 큰당과 각시당이 호응하고 있는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원리 큰당과 남당이 호응하는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중춘 심방이 큰당과 남당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두 당 사이를 오고가는 머리 뿔 달린 뱀의 존재를 들어서 해명한 바 있다.[2] 여기에서도 당동산의 신이 난도려 각시당의 숨구멍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발상으로 평가된다.

신이 당도했음에도 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난도려 각시당의 숨구멍을 막아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자신의 터전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셈이다. 신이 등장해서 자신의 영검을 보여야 신도가 구성되고 자신을 위한 본향당굿이 마련된다.

(나)에서 당동산에 좌정한 신의 영검을 파악하지 못해서 마을 단위의 대표자들이 숙의하는 대목이다. 신이 인간과 계약문서를 작성하고 신으로 좌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마을 유지들의 공론은 수포로 돌아간다. 전좌수, 의령좌수, 묘니오름, 결민장 등의 구성원과 마을 유지들이 나섰어도 결국 이들의 공론은 결정되지 못한다. 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백발노인의 등장으로 급진전된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매개자가 등장해서 일을 주선해 주었기 때문이다. 백발노인은 인간의 뜻도 알고 게다가 신의 뜻도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반신반인의 양면성을 지닌

2) 2002년 2월 26일 과세제의 현장인 남당에서 이중춘 심방이 액막이를 마치고 당 밖으로 나와서 큰당과 남당 사이의 가로지른 해안도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지적한 말이다.

존재이다. 마을 유지와 신을 연결시키는 이 존재는 곧 무당일 개연성이 높다.

(나)의 대목은 신성한 존재와 세속적 존재가 만나서 신탁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소하는 마을 신앙의 무속적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 증거이다. 만약에 백발노인이 없었다면 신의 재앙과 인간의 공론은 중재되지 않고 멀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사제자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둘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예지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관계가 고정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본향한집 또는 본향당신 : 당맨심방 또는 당하님 : 마을 당골의 3자 관계가 싹트게 된다. 당맨심방은 특별한 신내림의 현상을 겪지 않고 사제의 관계 속에서 이어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곧 심방 개인의 입부 과정과는 별도로 당맨심방의 직능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다)에서 당맨심장으로 추정되는 매개자가 부과하는 본향당신과 당골들의 당제 계약 과정이 직접 노출되어 있다. 당제의 제일 성립은 기존 연구사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것은 신과의 약속 주기이자 동시에 자연적인 달력인 동시에 인간들의 생산력에 맞춘 주기임이 쉽사리 드러난다. 자연과 문화의 주기가 신성한 제의에 얽매여져 있는 셈이다.

신년과세제는 새해의 시각을 알리는 것으로 신에게 문안을 올리는 것이다. 제주도의 세시풍속 주기 가운데 신구간의 변화는 대단히 소중한 구실을 했다. 이 기간에는 일정 지역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출입왕래가 정지되며, 주어진 틀 안에서 우주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체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신년과세제는 그러한 주기의 시작을 알리고 변화를 시작하는 단초가 된다.

2월 12일에는 영등맞이 백마단속을 하는 시기이고, 13일에는 각시당에 내려가서 바다에 씨드림을 하는 시기이다. 이 때에는 천체기후의 변화가 격심하고 바다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생태체계적 주기이다. 영등신은 일종의 천체기후와 생산을 관장하는 불특정의 거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신격이다. 본향당신과 영등신은 동격 위계를 가진 신이므로 서로 타협할 소지가 있으며 본향당신의 위함을 받는다. 마을의 거처 공간을 차지한 신과 밖에서 풍년과 풍어를 관장하는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을 맞이하고, 13일에는 각시당에서

그러한 신을 송별하는 송별제를 거행한다.

7월 14일에는 백중대제를 거행한다. 이것을 달리 마불림제라고 한다. 장마가 지속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에 공물을 바친 신옷이나 옷감에 대체로 '마'라고 지칭되는 곰팡이가 피게 마련이다. 그러한 마를 7월 백중의 뜨거운 태양빛에 말리고 옷을 청소하는 제의이다. 마불림제느 신에게도 청소의 시간이 되고, 단골들 자신도 스스로 청소하는 계기가 된다.

마불림제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하한기의 제의이다. 음력 3, 4, 5, 6월의 바쁜 농사가 끝나고 지루한 장마도 다 그친 사이에 신의 보살핌을 되새기는 제의이다. 본토에서 호미씻이를 이 과정에서 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인간의 휴식기가 신에게 되돌려져 하는 행사가 곧 마불림제인 셈이다. 자연의 기후에 따른 절기가 종교의 문화력과 잘 맞아 떨어졌다.

10월 12일에는 한해의 수확에 감사드리는 제의이다. 본향한집의 수호 아래 모든 단골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제의이다. 곡식을 거두어서 고장쌀을 바쳐서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한해 농사와 생업이 마무리된다는 뜻을 가진다.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한집에게 시곡만대제를 바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연의 절기와 문화의 생산 주기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 곧 당제일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연과 문화를 총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 당맨심방이고 당맨심방은 본향당신을 모신다는 명분으로 신에게 신의 뜻을 물어 전달하고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신과 인간은 심방에 의해서 절묘하게 결합된다고 하겠다. 각자 단골 집안의 사연과 정성이 하나로 뭉쳐서 본향당신의 제일 아래 하나로 집결되어 마을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한다.

(라)는 당맨심방 또는 당하님의 역대 내력과 계보를 나타내고 있다. 봉모루 송씨할마님, 엉밭 최씨할머니, 웃방상 손씨하르바님, 동문가름 김씨할으바님, 섯동네 송씨할마님, 신동내 양씨할머님 등이 그들이다. 마치 본주집 굿에서 공시풀이의 죽은 심방들 계보를 외우듯이 당맨심방의 내력을 언급한다. 그래서 심방의 계보나 내력이 당의 신앙을 일정 부분 점유하고 있는 역사성을 갖춘다.

당의 역사는 신의 역사이면서 단골들의 숭앙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당을 수호하고 지킨 당맨심방의 역사이다. 당맨심방의 역사는 부차적이라 이해될지 모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맨심방의 역사가 누적되고 계승될수록 본향당의 역사와 권위는 마련된다. (라)에서 신을 섬겼던 당맨심방의 내력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는 제주도 구좌읍 하도리 큰당의 수난사를 크게 확장해서 기록하고 있다. 구전의 역사가 덧보태지면서 큰당을 지키고자 했던 심방과 단골의 결집된 노력이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제주도의 당들이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훼손되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부류의 행각으로 수난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남아 있다.

아울러서 (마)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리 마을에서 면수동이 갈라지게 된 내력과 제주도 4·3사건의 실체도 구전된다. 하도리의 작은 마을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된 사연이 거듭 강조되어 있다. 이것은 본향당신앙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강한 구전 역사의 진실은 가릴 수 없는 생동감을 준다.

사리가 이렇다면 제주도의 당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가) 신의 내력 : 구전서사시 / 구전신화
(나) 신과 인간의 만남 : 본향당신과 마을 주민의 심방에 의한 중재
(다) 신과 인간의 계약 : 당제의 순서와 제법 마련
(라) 당맨심방의 내력
(마) 다시 쓰여지는 구전 역사

제주도의 당본풀이가 (가)에서 (마)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기본적 요소는 (가)(나)(다)인데, 요즈음 채록되는 구전서사시인 당본풀이에서 새삼스러이 (라)와 (마)가 첨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체로 (가)(나)만이

저간에 당본풀이에서 주목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라)와 (마)가 첨가되면서 당본풀이의 새로운 조짐이 나타난다. 그리고 안타가운 사실이나 구전력을 상실하면서 당의 역사를 옷감이나 나무판에 새겨서 전승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만 중시하던 관점에서 (라)(마)가 등장하는 변화의 실상에로 관점의 전환이 요청된다.

제주도의 당본풀이가 소중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본풀이가 거듭 쓰이면서 그러한 역사의 사실이 첨가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관점에서 요긴하다. 마을의 역사를 당본풀이에 담아서 전승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사 교과서적 기능을 당본풀이가 수행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당본풀이는 비록 규범적 엄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신화적 특성을 담보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의 창조 과정이 분명하지 않으나 신화로서 기능하는 면모가 당본풀이에 있는 셈이다.

제주도의 당본풀이가 역사와 신앙, 전설과 신화의 양측면이 있으며, 그 둘의 실천적 만남은 제의적 문맥에서 가시화된다. 당본풀이가 구연되는 순간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하나로 통일되는 순간이다. 동시에 신과 인간이 하나로 되고, 심방의 중재에 의해서 그들의 행위는 신앙으로 귀결된다. 본향한집은 당본풀이에서 이승에서는 호적을 차지하고, 저승에서는 장적을 차지한다는 말을 흔히 한다. 호적과 장적을 들고서 간절하게 비는 단골의 모습에서 종교적 신성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마을 신앙의 당본풀이가 중요한 것은 종교적 jtls 성함의 법률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당본풀이가 이러한 면모를 가졌음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이에 대한 거시적 연구가 불가피하고, 포괄적인 문제의식이 요청된다. 이 글은 당본풀이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설계도이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분포와 계통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적 논의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Ⅱ. 제주도 당본풀이의 신 계보, 본풀이 유형, 신당분포

제주도는 단일한 신이 나타나서 세우지 않았다. <삼성신화>에 예시되어 있다시피 세 명의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나타나서 각기 제주도를 가르고 분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그것은 <삼성신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당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의 계보 구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연구사에서는 두 가지 각도의 해명이 있다.

하나는 신들의 계보적 구성이 사회적 측면의 반영인 동시에 전도적인 전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송당본풀이의 근본 뿌리가 확장되면서 특정한 귀족계급이 생활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씨족의 계보화를 통해서 동일한 대상으로 전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관념의 소산이라는 견해가 있다.[3] 다른 하나는 신들의 가족 구성이 인간의 가족 관계 투영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당본풀이에서는 부계와 모계의 출자원리에서 비롯되고 더 나아가 제주도에 두 출자가 다 보이므로 다른 문화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이다.[4]

두 가지 견해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측면의 다른 모습을 각기 지칭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가족 계보의 구성을 통해서 제주도 당신의 계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고, 달리는 당신의 계보 구성이 각기 출자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통일성 속에서 차별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전체의 통일적 파악을 우선시 여기는가, 아니면 전체의 구성 요소를 차별화시켜 파악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오히려 여기에 있지 않다. 신 계보가 의미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에서 비교가 필요하다. 곧 제주도 심방들이 말하는 신 계보가 신들

3) 진성기, 『탐라의 신화』(평범사, 1980), 71면.
4)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집문당, 1986), 197면;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144면.

의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의 유형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가, 아울러서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본향당 또는 신당의 구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검토해야 문제의 실상이 드러난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신 계보, 당본풀이의 유형, 신당의 분포 등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별도로 진행했다. 당본풀이의 유형은 당본풀이의 유형에 관해서 주로 진화론적 각도의 논의를 했다. 그래서 다종다기한 당본풀이의 상관성에 관해서만 언급했을 따름이다.[5] 이들 연구는 주로 당본풀이의 구성 요소가 결합되는 양상에 주목해서 단순한 요소가 어떻게 복잡하게 진행되어 서사적 구조를 형성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을 따름이고, 제주도 당본풀이의 서사적 유형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신의 계보가 당본풀이의 유형 분포와 상관성이 있는가 규명해야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신당의 분포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긴요하게 취급했으면서도 이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당의 분포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신당의 분포를 바라보는 관점이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르다. 크게 두 가지 각도의 연구가 있었는데, 제주도 전체의 구성 요소를 일별하고 당신의 분포를 논의한 견해가 있다.[6] 밀착적인 현지조사에 의해서 제주도 당신앙의 전반적인 분포와 신당의 형태를 연구한 견해도 있다.[7]

그런데 당본풀이의 유형과 신당의 구획이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관시킨 논의가 있어서 주목된다.[8] 이러한 연구는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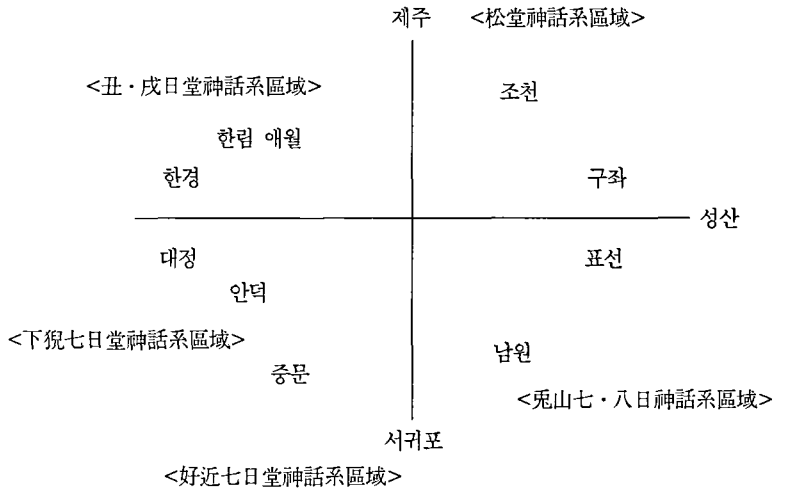
---

5) 장주근, 「본풀이의 구성과 모티브」,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현용준, 「당신화의 형성과 기본형식」,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장주근은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으로 구분하고, 기원형은 ①남신의 용출/ ②여신의 입도, 기본형은 ①+③좌정 경위담/ ②+③, 성장형은 ①+②+③+④남녀신의 결혼, 완성형은 ①+②+③+④+⑤남녀신의 갈등과 별거+⑥추방된 아들신의 해중 무용담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구성 요소를 말했다. 이에 반해서 현용준은 ᄀᆞ스락당본, 문수물당본과 김녕큰당, 색달리당본과 ᄃᆞ릿당본, 상창하르방당본 등의 특징을 비교하고, 이러한 요소와 형식이 예술적 설화나 종교제의에서 발전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방식을 규면했다.

6) 현용준, 『제주도 토산당굿』(문화재관리국, 1966), 7면.

7) 문무병, 『제주도당신앙연구』(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를 할 수 있는 긴요한 실마리가 된다. 논의의 핵심을 옮겨서 추상화시켜 표시하도록 한다.



<송당신화계구역>은 제주에서 조천, 구좌 등지에서 제주도 북서쪽에 포괄적으로 분포한다. <토산7·8일신화계구역>은 성산, 표선, 남원 등지에 분포한다. <호근7일신화계구역>은 서귀포, 중문, 안덕 북부에까지 분포한다. <하예7일신화계구역>은 안덕 일대에 집중적 분포를 보인다. <축·술이당신화계구역>은 한경, 한림, 애월 등지에 폭넓게 분포한다. 당신화의 핵심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 사실이다. 당의 본풀이가 일정한 권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역 구분에 소속되지 않은 당본풀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서귀포의 동홍리, 서홍리, 하귀리 등에 있는 당본풀이는 어떻게 구

8) 현용준, 「제주도당신화고」,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114면.
이 연구는 제주도 당의 분포와 당신화를 본격적으로 규명한 유일한 연구 논문이 아닌가 한다.

분해야 하는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지나치게 분류를 단순화시켜서 다루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당본풀이가 보여주는 당신의 계보, 본풀이의 계통, 신당의 분포 등에 대한 연관성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논의가 요망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차례대로 필자의 시각에서 재정리하고 차례대로 재론하고자 한다. 먼저 당신의 계보는 크게 보면 북군과 남군, 그리고 남신의 계보와 여신의 계보를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북군에서도 남신의 계보가 제주도 전체에 확장된 경우도 있고, 여신의 제주도 전체에 확장된 경우도 있다. 역시 남군에서도 같은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의 계보가 당맨심방이나 구연자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신의 계보가 구성되면서 구연자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 연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신의 계보를 구성하려는 전승이 다채롭게 이어졌음을 풍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차와 각 지역의 전승 유형을 일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지역 / 신의 계보		북제주군 (산북)		남제주군(산남)	
		남신(아들)	여신(딸)	남신(아들)	여신(딸)
부모신		소로소천국	백주할망	×	중문이 제7남(남신) 천지천왕어멍국족달이대서부인
1	A	거멀문국성	똘야기스물여덟	눈미제석천왕하로백관	난드르주문도천일뤠중조
	B	거멀문곡성상호한집	(이하동일함)	수산일뢰모르하로산	×
2	A	대정 과정당		난미제석천황	열리망밧일뤠중조
	B	시내왓당대천오		물미제석천황하로산	×
3	A	웃내끼		동홍리지산국(여)	거문질청밧할망일뤠중조
	B	대정광정당		예촌삼시백관또하로산	×
4	A	내왓당광광영당		서홍리고산국(여)	번내왓원당일뤠중조

	B	정이시선당		호근이서천밭하로산	×
5	A	선앙당광돌윗당		호근물서천밭우덟애기	통천이고도세미일뤠중조
	B	수산하로하로산		중문이도래물하로산	×
6	A	괴본산국		단ᄆᆞ을청하원을왕국	창천리당밧할망일뤠중조
	B	토산대천오		색달리하로산	×
7	A	삼물이서당오라서		중문이	열리전신당일뤠중조
	B	짐녕태ᄌᆞ님		열리하로산	×
8	A	과양당		×	
	B	조천면굇드르		통천이고나무상태ᄌᆞ	
9	A	ᄃᆞ리산신또		×	
	B	ᄃᆞ리		날뢰제석천황할로산	
10	A	궷드르산신또			
	B	웃내끼			
11	A	와홀산신또			
	B	하귀허릿공			
12	A	세미산신또			
	B	괴본산국			
13	A	도련			
	B	와홀산신또			
14	A	감을개시월도병서			
	B	세미산신또			
15	A	알서늘산신또			
	B	도련			
16	A	짐녕괴노기			
	B	감을개시월도병서또			
17	A	토산서편한집			
	B	알서늘산신또			
18	A	도들봉			
	B	도들봉오름허리			

A : 김오생 구연[9)]
B : 양기정 구연[11)]

A : 강계월 구연[10)]
오신정 구연[12)]
B : 김명선 구연[13)]
강철년 구연[14)]

A : 강철년 구연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신의 계보 구성 법칙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그것을 논의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구성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보 구성의 차이점이 무엇을 뜻하는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북군과 남군의 당신 계보가 각각 다른 전승 문화적 조건 속에서 성립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계보 구성에서는 제주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색이 한결같지 않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북군과 남군의 당신앙 전승 기반이 독자적으로 성립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북제주군에서는 아들과 딸의 계보가 긴요한 구실을 한다. 구비공식구로 등장하는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세맹조 알손당 소로소천국 아들애기 예레둡 뚤애기 쑤물우둡 손지 방상 삼백 이른 우뎁'이라고 하는 서두에서 아들과 딸의 구실이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구성 계보에서 딸애기 스물 여덟에 관한 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여신 계보는 공간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북제주군의 아들 계보에서 중요한 원칙이 발견된다. 제주, 대정, 정의 등의 3분 권역에 의존해서 대정의 광정당신과 정의의 시선당 또는 토산당을 반드시 언급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은 당본풀이가 정통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기왕의 연구자가 이러한 구성 원칙을 두고서 근거리 구성과 원거리

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10) 위의 책.
11) 위의 책.
12) 위의 책.
13) 문무병, 앞의 책, 자료편 참조.
14) 현용준, 앞의 책, 같은 곳.

구성의 복합법칙에 의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은 일견 타당한 견해이나 제주도의 행정체계가 3분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오래된 전통이 아닌가 추정된다.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의 행정구분이 대체로 조선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삼성신화>의 전통을 생각해보면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전통이 확립되었으리라 추정된다.[15] 그러므로 계보 구성에 있어서 대정의 광정당과 표선의 토산당이 언급되는 것은 전혀 허황한 발상이 아니다.

그리고 북제주군이라고 하더라도 구연자의 각편에 따라서 결정적 차이가 생긴다. 김오생과 양기정의 구연본은 일치되는 신이 불과 1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다섯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심방의 계보마다 제각기 다른 전통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현지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그런데 문제는 북제주군의 당신 계보를 구성하는 종조의 부모신에 있다. <송당본풀이>의 남신인 소로소천국과 여신인 백주할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들은 어떠한 출자 원리를 가졌는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로소천국은 제주도의 토박이이고, 백주할망은 외지에서 들어온 떠돌이이다. 소로소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문면에서는 알손당 고부느므르에서 솟아났다고 했으며, 백주할망은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밖에서 들어온 외래신격인가 아닌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부모신의 결합에 의해서 아들애기와 딸애기가 번식해서 각기 일정한 자신들의 본향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남제주군에서 보여지는 신의 계보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아홉성제가 각기 할로영주산 쐴거릿낭된밭에서 솟아났다고 하거나 이와는 다르게 할로영주산 섯어깨 소못된밭에서 솟아났다고 되어 있다.[16] 그리고 이들 형제가 각기 자신들의 본향처를 결정했으니 이를 정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김봉옥, 『증보제주통사』(세림, 2001), 82~85면.
16) 그러한 사실을 강계월 구연본과 김명선 구연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문이 본향들이아홉 성제랏주기. 성제가 아홉 성젠디 할ᄅᆞ영주산 섯어깨 안 '소못뒌밭'디서 솟아나고, '칠거리뒌밧'디서 가지 갈라갔젠 ᄒᆞ주게. 어떤 사름은 화살인가 시예네 화살 신거 떨어지느냥 가지 갈라갔젠 해도, 그것이 아니라서[17]

아들 9형제가 각기 솟아나서 본향처를 결정한 사실을 말하고 김명선 심방이 그것이 아니라고 다른 이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아홉 성제가 한라산 섯어깨 안의 '송문뒌밧'에서 솟아났고, '칠거리뒌밧'에서 가지를 갈랐다고 했다. 가지를 갈라 갈 때에 어떤 사람이 활을 쏘와서 갈라졌다고 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본향처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선 심방이 논박한 사실은 마치 땅에서 솟아난 3형제인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화살을 쏘아서 경계를 구분한 신화소에 관한 반박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좀더 논구해야 할 사실이지만, 이러한 공통점은 묵과할 수 없다. 경계구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곧 숫자의 차이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제주군의 형제 구성 요소가 강계월 구연본과 김명선 구연본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차이에 관해서 이해해야 할 사항은 강계월은 9형제에 구성에 있어서 서귀포의 동홍리와 서홍리의 지산국과 고산국을 넣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점을 상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네 구연자의 9형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강계월 구연본은 계보 구성이 나머지와 너무나 차이가 있고, 다른 구연본에서 발견되지 않는 눈미제석천황, 동홍리 지산국, 서홍리 고산국 등에 관한 계보 편입이 있어서 본질적인 것인가 의문이 든다. 눈미제석천황하로백관은 북군에 있는 조천면 와산리의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북군의 송당계보가 가지는 3분법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강계월 구연본의 구성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17) 문무병, 위의 책, 276면.

	강계월본	오신정본	김명선본	강철년본
1	눈미제석천왕하로백관	수산일뢰ᄆᆞ르하로산	수산울리ᄆᆞ르	수산울뤠ᄆᆞ루하로산
2	난미제석천황	물미제석천황하로산	난미서천밧	물미제선천황하로산
3	동홍리지산국	예촌삼시백관또하로산	예촌백관또	예촌삼시백관또하로산
4	서홍리고산국	호근이서천밧하로산	호근물ᄋᆞ드렛본향	호근리이서천밧하로산
5	호근물서천발ᄋᆞ덥애기단ᄆᆞ을청	중문이도래물하로산	중문이백관또	중문이하로산
6	하원을왕국제석천황	색달리하로산	섹달리당동산백관또	섹달리하로산
7	중문이	열리하로산	열래백관또	열뤼하로산
8	×	통천이고나무상태ᄌᆞ하로산	통천이감산안산본향	통천이고나무상태자하로산
9	×	날뤠제석천황할로산	날뤠	날뤠제석천황할로산

나머지 오신정본, 김명신본, 강철년본의 계보 구성은 둘째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따름이고, 8형제의 좌정처는 동일하다. 오신정 구연본과 강철년 구연본에서는 물미제석천왕하로산이라고 해서 애월면 수산리에 좌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명선 구연본에서는 성산면 난산리로 좌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있고, 애월면 수산리까지 확장된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다. 서귀포 지역은 예외적인 지역으로 하고 송당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서 당본향을 계보적으로구성한 것은 특별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윗대 구성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한라산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군에서 딸들의 계보가 구성되어서 일정하게 본향처를 정한 것이 인상적이다. 열래백관또와 천지천왕어멍국 족달이대서부인의 사이에 7자매를 두었는데, 그들이 불효해서 결국 헤어지게 된다. 신들의 명칭 뒤에 반드시 일뢰중자가 붙어 있어서 7일당신의 계통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윗대의 하로산계통이 아니고 7번째, 7자매의 일뢰중자라고 해서 일뤠신의 계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부친의 계통을 일부 이으면서도 자신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계보가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북군과 남군의 계보 구성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검토할 차례이다. 우선은 자연지리적 조건과 인문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특별한 곳이나 영기가 있는 곳에서 시원이 시작되어 독자적인 당의 문화를 생성시킨다. 북군의 웃손당과 알손당은 상징적으로 구좌읍 전체를 옹위하고 있는 장소이다. 중산간 마을로 영기가 있는 장소로 간주한다. 이곳에 웃당과 알당이 생성되는 것은 외지에서 온 여신과 토박이인 남신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남군의 경우에는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소못뒌밭에서 솟아났다고 했으니 남신들이 한라산의 서쪽으로 탄생한 셈이다. 한라산의 신령스러운 장소를 배경삼아 그곳에서 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설정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이나 고부니ᄆᆞ루에서 솟아난 신이나 대등한 셈이다. 그런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출생과정을 거쳤으므로 일률적인 구성을 갖춘 것은 아니다. 혼자 솟아났는가 아니면 여럿이 솟아났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다음의 서사적 구성이나 계보가 차이가 난다. 대등한 처지에 있으므로 서로 비교해야 할 이유가 없고 각기 일정한 판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다스리게 된다.

대등한 계보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사실은 남녀신의 결합이다. 남녀신의 결합은 외지에서 도래한 여신과 토박이 남신이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별도의 좌정처를 정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손을 번식하는데 둘의 결합 의미를 찾게 된다. 소로소천국과 백주또할망, 중문이와 천지천왕어멍국 족달리대서부인의 결합에서 그러한 결합 법칙을 찾아볼 수 있다. 형제간의 관계 설정은 대등한 위계를 나열하는 것이고, 남녀신의 결합은 대등한 위치에서 결합하여 또 다른 생산을 꾀하는 것이다.

소로소천구과 백주또할망의 아이에 열 여덟 아들과 스물 여덟 딸애기가 나온 것은 부모대와 자녀대의 위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본당을 차지한 신과 다른 좌정처를 구한 아들 딸 신은 상위와 하위의 신격적 위계적 구성을 말하는 증거이다. 송당에서 웃손당과 알손당이 갈리고 여기에서 열 여덟 곳의 아들 좌정처가 가까이 또는 멀리 마련된다.

중문리 제7남과 천지천왕어멍국 족달리대서부인의 결합 역시 같은 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북군의 송당계보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중문리 부친을 중심으로 가까이 좌정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특히 여성인 딸신의 계보로 구성되는 것도 특징적이다. 중문과 안덕 일대를 벗어나지 않고 아주 가까운 곳에 분산된다. 중문 대평, 중문 하예, 안덕 사계, 안덕 화순, 안덕 감산, 안덕 창천, 중문 하예 등으로 근접한 위치에서 신의 가지가 갈라지게 되었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신 위계가 이처럼 구성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모든 신화는 신의 위계와 계보를 중시한다. 『古事記』나 『성경』에서 신의 계보가 구성되고, 『神統記』와 같은 저작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다른 당본풀이에서도 당과 당 사이의 '가지 가른 당' 관계가 강조되는 것처럼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신 계보가 형성되는 사실은 '가지 가른 당'을 넘어서는 본질적 요소이다. 신의 계보가 구성되는 것은 위계의 구성에도 필요하지만 마을의 지리적 발달과 함께 형성되는 일종의 신화적 지리지이며 마을과 마을 사이의 종교적 상관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하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서사적 유형 또한 제주도 당본풀이에 관한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제주도 당본풀이는 크게 송당본풀이계통, 으드렛당본풀이계통, 동홍리당본풀이계통, 중문리당본풀이계통, 광정당본풀이계통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당본풀이의 계통은 일정한 서사유형을 갖추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변이되는 유형도 적지 않아서 원형과 변이형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과제이다. 앞에서 검토한 신의 계보와 당본풀이의 계통은 일정한 관계가 있으나 신의 계보로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중요한 당본풀이의 원형을 지니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당본풀이 유형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검토하기로 한다. 세부적인 당본풀이의 유형 검토는 하나씩 검토할 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각 유형의 추상화시킨 단락을 점검함으로써 전체적 윤곽을 잡는데 쓰기로 한다.

(1) 송당본풀이
(2) 으드렛당본풀이
(3) 동홍리당본풀이
(4) 중문리당본풀이
(5) 광정당본풀이

(1) 송당본풀이는 제주도 동북부 일대에 드넓게 분포하는 당본풀이로 신의 계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당본풀이이다. 얼개가 뚜렷하고 변이의 요소가 다수 함축되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변이형태의 본풀이를 탄생시킬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송당본풀이>의 핵심적인 서사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가) 땅에서 솟아나다.
(나) 바다를 건너오다.
(다) 배필을 만나 혼인하다.
(라) 부부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마) 부부가 다투다.
(바) 붑가 각기 다른 곳에 좌정하다.
(사) 자식들이 각처에 좌정하다.

(가)와 (나)는 남신과 여신의 출자를 말해주는 요소이다. (가)는 땅에서 솟아났다는 이른 바 '地上湧出' 신화소로 제주도 당본풀이나 일반본풀이에 널리 분포하는 신화소이다. 이 신화소는 두 가지 의미를 함의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18) 이러한 서사단락의 분석 방법은 조동일, 「탐라국서사시를 찾아서」, 『제주도연구』(제주학회, 2001)에서 했던 것으로 그것을 원용해서 정리한다. 신호분석을 동사단위로 해야 한다는 전통에 대해서는 질베르 뒤랑(유평근 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살림, 1999)에서 논의 한 바 있다.

생산의 표지로 아이가 솟아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용적 인식은 제주도에 널리 퍼져 있다. 다른 하나는 '지상용출'의 신화소인데, 이러한 신화소는 <삼성신화>에서 시작하여 여러 당본풀이의 각편에 두루 존재한다. 구멍에서 솟아난 남녀에 관해서 트로브리안도의 신화, 宮古島와 八重山島의 신화소에서 두루 확인된다. 이러한 신의 출생은 (나)에서도 적용이 되고 백주할망이 강남천자국 세모래왓에서 솟아나서 제주도로 건너온다. (나)의 신화소는 도래신화소로 토박이신의 출자와는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와 (라)는 혼인과 생업에 관련되는 단락이다. 이질적인 두 신의 결합은 신성성의 강조이자 제주도 당본풀이의 특별한 설정화소라고 하겠다. (다) 혼인의 화소는 이질적인 계통의 신격이 결합하는 것이고 출자가 다른 남녀가 결합해서 신성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꾀했다. (라)에서는 출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별도의 직능을 구현한 사실이 드러난다. 남자는 제주도의 한라산에서 사냥을 하는 일을 했고, 여자는 농사법을 주장한다.

(마)와 (바)는 생업이 다르고 식성에 갈등이 생겨서 다투고 각기 다른 당에 좌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에서 핵심은 농사법으로 소로소천국이 만족하지 못하고 중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해서 밥을 먹어버리는 배고픔의 빌미를 제공하자, 본디의 육식 습관으로 환원한다는 사실이다. 농사법을 권한 여신과 그것을 부정한 남신이 결정적으로 갈등을 겪고, 각기 다른 곳으로 좌정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과 분산은 당의 좌정처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

(사)는 <송당본풀이>의 신 계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구연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아들 18형제가 9형제, 12형제 등의 명칭만 밝혀져서 제시된다. 그러나 아들 열 여덟이라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

(2) <ᄋᆞ드렛당본풀이>는 토산리 알당본풀이가 핵심에 해당하고 제주도 전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표선면 일대에서 서귀포 지역의 인접하는 데까지 제주도 남서부 지역에 존재하는 당본풀이이다. 이 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 계통과 대조되는 것이므로 주목을 요한다. <ᄋᆞ드렛당본풀이>의 핵심적인 내

용을 서사단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가) 나주목사 사신 징치담
(나) 바둑돌로 변한 여신의 강씨, 오씨, 한씨 집안의 수호신화
(다) 바둑돌의 신격변화와 토산당신 좌정
(라) 당신과 토산리 마을 단골의 갈등과 화해

(가) 나주목사 사신 징치담은 뱀신이 관원에 의해서 부정되는 화소이다. 이러한 내용은 ,김녕사굴>이나 <이형상목사> 설화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화소로 <ᄋᆞ드렛당본풀이>의 전반부에 이 화소가 들어가 있다. 나주목사가 신의 재앙을 받기는 했어도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김녕사굴>의 서사적 설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 나주목사의 공격을 받은 뱀신이 바둑돌로 변해서 서울 종로의 네거리에서 제주도에서 진상온 강씨, 오씨, 한씨를 만나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이다. 뱀신이 바둑돌로 변하는 설정은 특징적이거니와, 뱀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 성씨에게 부과되는 시련과 신성 인지의 화소는 전형적으로 <조상본풀이>의 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에서 뱀신과 단골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으므로 (라)에서 단골 집안의 자손과 문제가 지속되고 부정적인 신내림의 방법으로 뱀신의 존재를 인지하게 만든다.

(다)에서는 뱀신이 토산당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집님과 개로육섯또가 갈등을 겪고 자신의 좌정처를 정하면서 알당에 부부가 되어 함께 좌정한다. 그렇게 해서 (가)에서 시작된 문제가 곧 해소된다. 자신의 신성을 거부당해서 신이 고초를 겪다가 마침내 제주도로 와서 맹오부인의 안내를 받아서 신으로 좌정도 하고 한집님과 혼인도 하게 되었다. 외지의 여신이 토박이인 개로육섯또와 혼인하는 화소는 제주도 당본풀이의 기본적 요소를 변형

19) 김헌선,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미발표원고, 2002), 3. 이 글에서 논의한 대목을 옮겨서 재론한다.

시켰다.

(라)에서는 단골을 확보하지 않은 당신의 영검이 이어져서 단골인 강씨, 오씨, 한씨의 자손들에게 저주가 내리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강씨애기가 왜선의 침략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죽고, 한씨애기가 급질에 걸려 굿을 하게 되어서 강씨애기의 원혼을 구제하고 굿법을 마련해서 마침내 본향한집이 단골과 약속을 받는 것이다.

<으드렛당본풀이>는 조상본풀이, 기존의 당본풀이, 역사적 경험담이 풍부하고 다채롭게 결합되면서 얼기설기 엮어진 당본풀이라는 느낌이 있으나, 제주도 고유의 뱀신앙에 근거해서 본향한집과 단골이 신앙으로 맺어지는 신의 서사시와 단골의 서사시가 적절하게 안배된 당본풀이이다. 주로 여성에 의해서 이어지는 뱀신앙 또는 조상의 관념이 생생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한집과 단골, 의례와 신화 등의 상관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3) <동홍리당본풀이>는 <서홍리당본풀이>, <서귀리당본풀이>와 계통을 같이하는 당본풀이로 서귀포의 지역적 한정성을 갖는 서사시이다. 어떻게 보면 안덕면 중문리 쪽과 남원면 쪽의 경계를 구분짓는 당본풀이인데, 종래의 당본풀이에서는 지역적 한정성과 당본풀이적 특색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던 자료이다. <동홍리당본풀이>의 핵심적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땅에서 솟아나다.
(나) 유람차 중국에 가다.
(다) 배필을 만나 혼인하다.
(라) 혼인이 잘못되어 다른 여자와 도망가다.
(마) 전처가 찾아나서다.
(바) 후처와 함께 숨다.
(사) 구상낭을 꺾어서 찾아 용서하다.
(아) 단골과 만나다.
(자) 신들이 경계를 구분하다.

(차) 신의 금기를 어겨 사람이 죽다.

(카) 신의 금기를 수정하다.

(타) 신들이 좌정하고 경계 확정하다.

(가)에서 신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다. 각편에 따라서 솟아나는 장소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제주싸 설매국에 일문관 바람운님이 소사나니 (중략) 비오더라 비오천리, 홍토나라 홍토쳔리에 고산국이라는 미색이 잇다거늘[20]

인용한 대목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채록된 것으로 일문과 바람운님은 제주땅 설매국에서 솟아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산국이라는 여신은 비오나라 비오천리 홍토나라 홍토천리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각편에서는 '아방국은 홍톳도/ 어멍국은 비웃도/ 중국서 이 제주에/ 들어온 신이다/ 체얌이/ 일문관 ᄇᆞ름웃도란/ 서울대ᄉᆞ의 ᄌᆞ식이/ 중국으로 유람을 갔는디'[21] 또는 '대명신위전/ 홍토나라 홍토천리/ 비우나라 비우천리/ 서백전 지산국/ 동백전 일문과 ᄇᆞ름운/ ᄇᆞ름웃또/ 아방국은 홍토나라/ 어멍국은 고산국입네다.'[22]라고 되어 있기도 해서 갈피를 잡기 어렵고 각편에 차이가 너무 난다.

(가)단락의 각편마다 발견되는 차이의 핵심은 일문관 바람운님의 출처와 출자이다. 박봉춘 구연본의 자료에서는 제주도 설매국에서 출자가 분명치 않게 솟아났으나, 다른 각편에서는 홍톳도와 비웃도의 출자를 가지고 중국의 출처를 가진 신으로 되어 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면 예사 당본풀이의 전통과 같다고 하겠으나, 외지에서 태어나 건너왔다면 당본풀이의 전통과 자못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0) 赤松智成・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朝鮮出版社, 1937), 213쪽.
21) 진성기, 앞의 책, 501면.
22) 위의 책, 510면.

(나)에서는 서울에서 중의 자식으로 된 일문관 바람운님이 중국에 유람차로 가게 되었다고 설정된다. 그곳에서 유람을 하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대신의 집에 기숙하면서 여인과 만나게 된다. (다)에서 어렵사리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과 쉽사리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에서는 (다)의 과정이 시정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처음에 만났던 여성이 직접 혼인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므로 처음에 만났던 여성과 함께 제주도로 도망쳐 오게 된다. (라)가 타당하게 전개되려면 일문관 바람운님의 고향이 제주도로 되어 있으므로 (가)와 호응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가)의 출처는 제주도에서 솟아난 것으로 설정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된다.

(마)에서 고산국이라는 전처가 일문관 바람운님과 여동생의 행각을 알아내고 축지법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인을 쫓아온다. 그러자 (바)에 제시된 것처럼 도망을 가는 사연이 깊은 안개로 감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와 (바)에서 신들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난다. (사)에서 (바)의 장애를 딛고 고산국이 일문관 바람운님과 여동생을 찾고서 이들을 퇴치하려고 하다가 이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에서 세 신이 김봉태라고 하는 단골을 만나서 그들에게 신으로 대접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는 김봉태를 따라서 '술오름'에서 같이 다니던 신이 경계를 구분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활과 뿡개가 동원되고, 고산국은 여동생의 성씨를 '지산국'으로 가르는 일을 감행한다. 그래서 각기 서홍리, 동홍리, 서귀리의 좌정처를 정한다. 세 신의 좌정처 경계가 분명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들의 금기를 어겨 신이 사람을 처단한다. 그것이 곧 (차)에 드러난다.

(카)에서 신의 금기를 세 신이 모여 수정하고, (타)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신들 사이의 다툼으로 신의 법칙이 수정되었어도 일부에서만 변칙이 인정되고, 나머지 마을 사이의 경계가 엄존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게 되었다.

<동홍리당본풀이>는 신들의 혼인과 이혼에 의해서 마을의 본향당신이 정해지고 마을 사이의 금기가 확립되는 신화의 기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당본풀이이다. 그리고 신과 단골의 만남도 있어서 단골에 의해서 신이 어떻게 숭앙되고 좌정하게 되는가 알 수 있는 당본풀이이다. 신들이 만나서 사연을 이루고 인간을 만나서 좌정하는 점은 다른 당본풀이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신화소이다.

(4) <중문리당본풀이>는 <송당본풀이>와 대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는 당본풀이이다. 서귀포 이서쪽의 당본풀이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주목되며,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송당본풀이>를 일정하게 다른 변이형으로 바꾸어 놓은 점이 더욱 중요하게 간주해야 할 대목이라고 이해된다. <중문리당본풀이>의 핵심적 서사단락을 간추려서 제시한다.

(가) 할로영주산에서 9형제가 솟아나다.
(나) 9형제가 활을 쏘아서 좌정처를 정하다. (9형제 좌정처)
(다) 다섯 번째가 진궁부인과 혼인한다.
(라) 부정한 짓으로 인해서 갈라서다.
(마) 아기씨가 태어나다.
(바) 아기씨를 버리다.
(사) 아기씨가 요왕국에서 여자와 혼인하다.
(아) 세변난에 참여해서 부인이 승리하다.
(자) 제주도로 다시 돌아오다.
(차) 부모가 딸 부부의 조화로 고통 당한다.
(카) 두 아기씨가 부모와 함께 좌정하다.

(가)와 (나)는 <중문리당본풀이>의 서두 부분으로 가지를 가른 9형제 당본풀이에 공통적으로 삽입되는 내용이다. (가)와 (나)가 다른 지역의 당본풀이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자적 면모이다. 한라서 섯어깨에서 솟아난 아홉 형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화살을 쏘아서 좌정처를 정하는 전통은 <삼성신화>의 화소와 비교되는 면모이다.

(다)와 (라)는 다섯째 신이 진궁부인과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갈라서게 되는 요소이다. 원문에 그러한 사정이 밝혀져 있다. '진궁부인이 유태를 가지난/ 유태를 가져서 아기를 설면서/ 하두 먹구 싶어서 존경내 나는 걸 먹으니/ 존경내 난다 ᄂᆞᄅᆞ사라'[23]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핵심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잉태하고, 그렇게 해서 남신과 여신이 갈라선다는 사실이다.

이른 바 돈경내 또는 존경내는 당본풀이에서 부부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치상으로 따져 보자면 돈경내가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명료하지 않다. 그런데 두 가지 사실이 연관되어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에 연결된 여성은 잉태한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잉태는 항상 단수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일곱 자식을 잉태한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남신과 돈경내를 가진 씨앗은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신과 여신은 갈라서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돈경내를 맡거나 직접 돼지의 내장을 꺼내 먹은 여성은 동북부이든 서남부이든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총체적 고찰이 요구된다.

(마)와 (바)는 (다)와 (라)의 사정을 뒤바꾸는 구실을 한다. 부정하게 태어난 자식이므로 부정하게 불효해서 결국 버림을 받는데, 아기씨를 무쇠석합에 넣어서 요왕국으로 띄우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궤눼깃당본풀이>의 전개와 흡사하다. 다만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바뀐 점이 특별하다. (사)와 (아) 역시 일치한다. 그런데 여성과 여성이 혼인하고, 세변난에 참가한 싸움의 주체가 부인으로 바뀐 점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자)에서 함께 제주도로 돌아온다.

(차)와 (카) 역시 궤눼깃한집이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요왕이 아기씨와 버려진 아기씨가 세변난의 평정 대가로 줌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버린 부모에게 '부술'을 구사했다. 부모가 버려진 애기씨의 존재를 용납하자 애기씨가 남복을 벗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그런데 요왕 셋째 딸이 덩달아서 남자가 아님을 알고 당황하니 부모가 좌정처를 함께 정해주고 같이 살도록 주선한다.

---

23) 문무병, 앞의 글, 277면.

그래서 (카)가 완성된다.

<중문리당본풀이>는 서두의 9형제 탄생담을 이어받아서 부부가 식성 갈등을 겪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버려지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부인이 영웅적 행위를 발휘해서 세변난을 물리치고, 부모와 애기씨 둘이 당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다. 신의 계보가 어떻게 아랫대로 이어지고, 여성영웅의 행적이 이어지는가 흥미롭게 변이된 당본풀이이다. 그래서 제주도 서남부의 당본풀이적 전통과 동북부의 전통이 교묘하게 배합되어서 독자적인 당본풀이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거시적 관점에서 재론해야 할 내용이다.

(5) <광정당본풀이>는 안덕면 덕수리 고창학이 전승하는 당본풀이로 제주도의 당 위계를 세우고 있는 당본풀이라 판단되어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당본풀이의 서사단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4]

(가) 삼형제가 출생하다.
(나) 외지에서 온 장수가 제주도의 질서를 어지럽히다.
(다) 삼형제와 짐통정이 다투다.
(라) 달아나는 짐통정을 퇴치하다.
(마) 삼형제가 경계를 가르다.

(가)에서는 서촌 양반 3형제라고 나타나 있다. 첫째는 과양당이고, 둘째는 정의 서낭당이고, 셋째는 대정 광정당이다. 제주도의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3분법 속에서 긴요하게 간주되는 당의 본향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점은 특별히 주목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설정은 <삼성신화>에서 세 형제가 태어나서 일도, 이도, 삼도를 차지하는 요소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서 항파두리의 김통정이 제주도의 위기를 조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김

24) 진성기, 앞의 책;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774~775면.

통정이 납세를 받고 천지의 질서를 교란시키므로 제주도 사람에게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다)가 나타났다. 김통정을 잡아서 그를 물리쳐야 제주도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에서 달아나는 김통을 둔갑법으 사용하여 큰형님이 퇴치한다.

(마)에서는 <삼성신화>에서 고을나, 양을나, 부을나 3형제가 활을 쏘아서 경계를 구분했듯이 여기에서도 3형제가 각기 활을 쏘아서 정의와 대정의 경계를 가르고, 목안과 정의의 경계를 가르고, 목안과 대정의 경계를 가른다. 그렇게 해서 큰형님은 목안 광양당에 좌정하고, 둘째 형님은 정의 서낭당에 좌정하고, 셋째는 대정 광정당에 좌정한다. 활쏘기로 경계 구분을 할 뿐만 아니라, 각기 목안, 정의, 대정 등의 좌정처를 정해서 본향당신으로 숭앙받는 것은 특별한 신화소이다.

<광정당본풀이>는 제주도 당본풀이에 투사된 역사적 시련과 극복에서 본향당신이 주도적인 구실을 하는 특별한 당본풀이이다. 경계 구분의 화소가 보편적으로 확인되는데, 그것은 <삼성신화>나 <동홍리당본풀이>의 그것과 그다지 다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제주시의 <광양당본풀이>에 지역적으로 대응하는 독자적인 안덕의 당본풀이로서 비교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서사시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섯 가지 당본풀이는 각기 다른 것의 유형이기는 해도 이들을 묶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특정신이 복수로 탄생했는가의 유무, 남녀신의 결합과 갈등, 특정신의 영웅적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 본향당신과 단골의 직접적 만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 신들 사이의 경계 구분 요소가 있는가 하는 점을 내세워서 당본풀이 서사유형의 상호관련 사항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다섯 가지 제주도 당본풀이를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는 면모이다. 참고 삼아서 <삼성신화>까지 함께 견주어 보기로 한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신화소 구성 요소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다. 세로축은 대표적인 당본풀이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리는 것으로 +1, +2, +3의 순서대로 서사적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A, B, C, D, E의 가로

축은 당본풀이의 공통적 요소를 간추려서 A의 요소에 +3, −, −, +1, +1, +1 등은 있고 없음을 표시한다.

	송당본	오드렛당본	동홍리당본	중문리당본	광정당본	삼성신화
A. 남신의 복수 출생	+3	−	−	+1	+1	+1
B. 남녀신의 결합과 갈등	+1	+2	+1	+2	−	+2/-
C. 영웅적 행위	−	−	−	+3	+2	−
D. 본향당신과 단골의 관계	−	+1/+3	+2	−	−	−
E. 경계구분	+2	−	+3	−	+3	+3

<송당본풀이>는 B, E, A의 순서로 전개된다. 남녀신의 결합과 갈등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그 갈등으로 각각 웃당과 알당에 좌정했으나, 그 사이에서 아들 열 여덟, 딸 스물 여덟, 손지 삼백 육십 오가 생겨났다고 한다. 혼인, 갈등, 자손 생산 등이 <송당본풀이>의 구성 요소가 된다.

<오드렛당본풀이>는 D(1), B, D(2) 등의 순서로 된다. 나주목사에게 금성산에서 죽임을 당한 뱀신이 바둑돌로 환생하여 강씨, 한씨, 오씨와 만나서 제주도로 들어와 개로육섯또와 갈등하다가 혼인해서 살고, 본향한집이 강씨, 한씨, 오씨의 자손들과 당골 관계를 맺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홍리당본풀이>는 B, D, E로 되어 있다. 일문과 바람운님, 고산국, 지산국 사이의 삼각 갈등이 형성되고, 제주도에서 김봉태라는 인물과 단골을 맺고, 활, 뿡개질 등을 통해서 각자 서귀리, 서홍리, 동홍리에 좌정해서 갈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녀신의 갈등이 식성 갈등이 아니라 애정 갈등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면모이다.

<중문리 당본풀이>는 A, B, C 등으로 되어 있다. 한라산 섯어깨 소문된 밧에서 솟아난 아홉 형제 가운데 일곱째가 진중부인과 결합했으나, 돈경내가 나는 부정한 짓을 해서 갈라섰다가 다시 결합한다. 그 사이에 낳은 딸이 영웅적 행위를 하고 부모에게 돌아와서 좌정한다는 내용이다.

<광정당본풀이>는 A, C, E로 구성된다. 태어난 3형제가 김통정을 물리치고 활쏘기를 해서 좌정처를 정했다고 하는 것이 서사 내용으로 전개된다. <삼성신화>는 A, B, E로 구성된다. 지상에서 셋이 태어나서 일본에서 온 여자와 결합하고, 각자 활을 쏘아서 경계를 정하고 다스려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서사적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A, B, C, D, E의 구성 요소가 결합하는 데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는가 찾아볼 수 필요가 있다. 신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출생하는 것이 있으니 이러한 구성은 여러 곳으로 흩어질 계보의 소인이 되며, 복수로 출생한 것 자체는 서로 대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소 뒤에는 남녀신의 결합과 그에 따른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다시 이 사이에 자식이 생기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와 결별하고 자신의 영웅적 과업을 달성하고 원래의 출발 장소로 환원하는 회귀성을 갖는다.

당본풀이에서 신화의 내용 이외에 첨가되는 것이 있으니 신과 단골 사이의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있다. 신성한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긍정적 관계도 있고, 이와는 다르게 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면 단골들에게 재앙을 주어서 잘 모시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부정적 관계이다.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노릇을 하는 인물은 심방이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다음으로 신의 좌정처가 본향당과 관련되는 것이 당본풀이의 결말이므로 경계 구분의 요소가 반드시 삽입된다. 신들의 다툼이나 갈등에 의해서 전개되기도 하고, 한곳에 모두 좌정할 수 없어서 각기 대등한 자격으로 가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판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단골들로부터 위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당본풀이는 신의 이야기가 핵심적 요소가 되고, 신들을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가 신과 단골의 관계 이야기가 합쳐져서 기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의 이야기가 확대된 경우도 있고, 신과 단골의 관계 이야기가 확대된 사례도 있다. 그 두 가지 상관성은 서사적 전개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을 가질

수도 있고, 상세하게 전개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본풀이 가운데 서사적 내용의 전개 없이 신명을 열거하고, 단골을 말하고, 제일과 제물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당본풀이 가운데 기본적 구성 요건만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서사적 내용이 확장되면서 몇 가지 요소를 결합의 순서를 달리해서 결합한다.

이들의 조합 순서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일정한 요소를 각 지역의 요건에 맞추어서 달리해서 갖추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BEA

D(1)BE(2)

BDE

ABC

ACE

BEA는 혼인, 경계구분, 자식들의 출생이 강조된 것으로 <송당본풀이>계통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법칙을 따른다.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소지는 BEAC인데, 자식들의 영웅적 행우가 첨가되면 <궤눼깃당본풀이>계통이 나타난다. D(1)BD(2)는 별개의 이질적인 요소가 합쳐져 있으니 D와 B의 결합이다. D만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조상본풀이> 그 가운데서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뱀신이나 조상은 모두 D가 확장되어 서술된다. 그런데 B와 같은 당본풀이의 요소가 합쳐져서 다른 당본풀이로 변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D(1)과 D(2)가 분리되어 나타났다. BDE는 오히려 애초에는 BED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BD가 먼저 존재하고, D가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인간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다. ABC는 제1대와 제2대가 순차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ACE는 태어난 인물이 영웅적 행위를 하고서 곧 바로 경계 구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당본풀이는 몇 가지 한정적 요소를 어떠한 순서로 조합하는가가 핵심적 관건이다. 당본풀이의 구성 법칙이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에 관련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제주도의 북동부는 BEA로 신의 혼인과 자식의 계보가 중시되어 있고, 제주도의 남서부는 ABC로 대등한 출생, 각자의 결혼, 자식대의 영웅적 행위 등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제주도의 북동부에는 BEA에서 변형된 BEAC가 우세하기도 하고, BEAC의 요소를 별도의 계보 구성을 각기 배당해서 여러 인물을 동시에 등장시키기도 한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서사적 유형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자면 대체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당본풀이가 어떠한 당신앙의 유형과 관련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지니는가 따져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마을에는 크게 세 가지 당본풀이 유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신화적 구성 내용, 신의 유형, 제의 등이 관련되기 마련이다.[25] 우리는 앞에서 신의 계보와 당본풀이의 서사적 유형에만 관련시켜서 논의를 밀집시켰다. 앞으로의 논의는 이러한 논의를 당의 분포와 결합시켜서 살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당 분포는 일률적이지 않다. 한 마을에도 마을 단골의 필요에 따라 본향당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당이 병립한다. 본향당과 다른 당의 병립은 어떠한 결합 법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본향당신은 본향당제와 당굿을 통해서 마을이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 통합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본향당신과 다르게 마을 사람에게 생명을 관장하는 산육신의 당도 있고, 더러는 몸에 나는 부스럼이나 옴 따위를 관장하는 피부병신의 당도 있다. 이러한 신은 정기적 의례가 필요하지 않고 인간의 소망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의례를 거행하는데, 그것은 제주도에서는 비념이라고 한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사신, 도깨비, 원령 등을 모시는 의례가 정기적으로 거행되고, 모계 혈통을 지닌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숭앙하는데, 이것은 병굿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당 분포는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단면적인 층위가 아니라 다면적 층위를 형성한다. 본향당신이 어떠한 신인가에 따라서 성격 구분이 가능

25) 문무병, 앞의 글, 254~256면. 필자가 당신앙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으니 앞으로의 논의는 모두 이에 의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문무병의 논의는 이론적 모델과 신앙의 실증 사례를 연결시킨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하겠으나, 여기서는 전반적인 당 분포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본향당신을 위한 당굿, 산육신과 피부병신을 위한 비념, 사신, 도깨비, 원령을 위한 병굿 등이 입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제주도의 신당 분포와 당신호를 연결지었던 현용준의 연구는 의의가 있으나, 당신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당이 있고 그들의 관계가 성립되는가 하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서 연구해야 비로소 의문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제주도의 본향당 분포에다 예측 가능한 사실을 첨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본향당 이외에 다른 당이 많아진 것은 단골들의 현실적 요청에 의해서 본향당 이외의 당을 설립하면서부터일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질병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계로 전승되는 조상신앙의 확장에 따른 것이다. 전자는 의료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할망당이나 피부병을 전담하는 당에서 해결하다보니 부수적인 당이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후자는 조상신앙이 확장되면서 특히 모계혈통의 확산에 의한 전도적 분포가 가능했으리라 추정된다. 뱀신, 도깨비, 원령 등을 가진 존재는 조상본이나 당본으로 지속되면서 신당고 당신앙으로 거듭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당분포는 중층적이며 입체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제주도의 당분포는 결국 당신앙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통일성과 함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면서 그들의 정기적이고 비정기적 요청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소규적인 단합이 또한 필요했으므로 본향당신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당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당분포에 대한 확인은 제주도 당신의 계보가 당본풀이의 서사유형을 넘어서는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을 갖는다. 신의 계보가 제주도 전체를 통괄하는 일반적이고 선명한 원리라면, 제주도 당본풀이는 특정 지역을 분할하는 원리이고, 제주도의 당 분포는 마을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복합적 원리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의 당 분포는 특정 지역의 친연성을 공시적으로든 통시적으로든 확보하고 있는 원리임을 부

정하기 어렵다.

Ⅲ.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 이해 필요성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당본풀이에 나타난 신의 계보, 당본풀이의 서사유형, 신당의 분포 등에 관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당본풀이 한 편의 천착에도 버거운 일임을 감안하게 되면, 공연한 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허황한 짓으로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안에서 깊이 천착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밖에서 크게 굽어보면서 제주도를 통째로 파악해야만 문제의 핵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의 계보는 제주도 전체를 한 손아귀에 휘어잡고자 하는 관념의 소산이다. 그것은 지배자의 논리이다. 제주도 전체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일관된 구성 법칙을 수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의 계보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무속신앙의 역사적 기저 층위를 감안한다면 당신의 계보적 구성은 기층 신앙민의 관점에서 본 구전 역사의 새삼스러운 견해일 수 있겠다. 북군과 남군의 계보 구성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기층 신앙민의 제주도 지배원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동시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증거물인 셈이다.

이러한 계보 구성은 <삼성신화>와 견주어 볼 수도 있다. 제주시 일원의 삼을나가 대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일부 견해가 채택되어서 이것이 전테인 것처럼 말하는 역사 기록물이 있음에 견주어서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에서는 그것과 다른 계보를 보여주고 있어서 기록된 문전의 역사와 말로 전하는 구전의 역사가 어긋나거나 상보적인 것이어야 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문전만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태도는 온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당본풀이의 신의 계보는 반성적 가치가 있는 셈이다.

당본풀이의 서사유형은 신의 계보에서 보여주는 전체적 구성 원리가 다시금 진실이 아님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당본풀이에서 제시하는 원리는 몇 가지의 서사유형이 지역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유형을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끔 변이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시느이 계보에서 발견할 수 없는 훨씬 다채로운 다양성이 제시된다. 적어도 위에서 논의된 다서 가지 구성 방식 외에도 각 유형의 변형 원리까지 합치면 대단히 입체적인 서사유형 파악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본풀이의 서사유형은 몇 가지의 한정적인 요소를 결합 방식을 달리하거나 변이의 면모를 택해서 구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한 조합 법칙은 인간의 사고 구조가 보편적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가 아니면, 제주도적인 당본풀이의 한정적 요인 때문인가 추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단언하건대 위의 조합 법칙은 제주도 당본풀이적 요인에 귀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당의 분포는 신의 계보와 당본풀이의 유형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당의분포는 마을 단위마다 본향당 이외의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중층위의 면모를 가진다. 신앙 자체가 신당, 본풀이, 단골 등으로 구체적인 한정성을 갖기 때문에 마을 신앙의 공고한 기반과 정체성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본풀이의 유형에서 보여주었던 것보다 미세하고 지역적 한정성을 갖게 된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제주도의 당본풀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체와 부분의 요소가 끊임없이 작용해야 한다는 진실을 말해준다. 전체와 부분은 단순하게 연결될 수 없다. 전체적 파악이 부분의 사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하고, 여러 지역에 고나한 관찰이 전체적 통찰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신의 계보, 당본풀이의 유형, 당의 분포는 제각기 논의될 개별 사안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총제이다.

기존연구사에서 이룩된 연구 성과는 경청할 만한 것이었다. 신의 계보, 당본풀이의 유형, 당의 분포 등은 그 나름의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장 아

쉬웠던 점은 전체적 통찰이고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북군과 남군에서 발견되는 신의 계보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당본풀이의 구성 요소에 관한 화소적 분절보다는 그러한 구성 요소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결합 법칙을 갖는가 밝혀야 했으며, 당 분포의 중층성이 결국 제주도 전체의 의미 파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논의했어야 마땅한데, 그 점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펴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 글은 성글기는 해도 신의 계보, 당본풀이의 유형, 당의 분포 등이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 이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잠정적인 결론을 추정했다. 전체적인 파악과 함께 전체적인 인식을 구조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 있고, 신앙의 기저 층위에서 지역적 인식을 공고히 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그 자체로 독립시켜서 다루어도 의의가 있으나,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연결시켜 바라보았을 때에 훨씬 값지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부분적 인식의 제약을 넘어서서 제주도 당본풀이의 총괄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글은 제주도 당본풀이가 그 자체로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러한 마을 단위의 당신앙을 견지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대상인 신을 서사시의 형식을 통해서 찬양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게다가 마을마다 일정한 변이형을 창출하면서 숱한 각편을 구연하는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누민족이 전승하는 유카르 yukar 가운데 이에 견줄만한 서사시가 없다는 자체가 제주도 당본풀이의 고유성을 말해주는 증거로 된다. 유사한 증거를 찾아서 좀더 논의해야 하겠으나, 제주도 당본풀이는 한국의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독자적인 구비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다.

제주도 당본풀이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인간의 구비역사에 대한 추구가 낳은 쾌거이다. 마을 단위의 마을 역사를 지키려고 힘쓰면서도 신을 모시고 마을을 보호하려는 뜻깊은 애정이 당본풀이로 표출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지금도 본향당신을 모시고 당제를 지내고, 그 현장에서 밥을 올리고 그 밥

을 먹는 일은 제주도의 영원한 신앙적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당매인심방이 본향당신을 섬기면서 단골들의 애환과 안녕을 빌어주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할 세계 문화유산이다.

[주제어] 당본풀이, 삼성신화, 단골, 당굿, 신당, 제주도, 당신

The Study on the genealogy organization and regional identification of Jejudo Dangbonpuri(당본풀이)

Kim, Heon-Seon*

Jejudo Dangbonpuri(당본풀이) is one of the world's unique traditions of oral epic in Korea. Jejudo Dangbonpuri is expressed to myth and history of each other villages.

Because Jejudo dangbonpuri transmi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whole area of jejudo, It tells that the Myth of a tutelar deity and History. Through the analysis of Dangbonpuri, we can grasp the point the view of the world and identification.

Each village of Jejudo is connected to Myth. These Myth form regional specialization. These dangbonpuri have a relationship of a married couple and father and son. so, we can conform the organic connection.

Jejudo dangbonpuri not only tells the pedigree of God. It contains the narration type how they became the village God. These narration type have a mutual connection. The kernel of narration type as below.

1. The Head of bonpuri not a one, but a many.
2. The Head of man and woman join together. But they have a feud.
3. Through the Heroic Adventure, The Head of bonpuri achieve his task.

* The Kyonggi University

4. After He come back his hometown, He is connected with Dangol(단골)
5. The Head of bonpuri arrange his district.

Jejudo dangbonpuri offer us a key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Jejudo. The villagers can tie up by God and the religious identification. these Dangbonpuri is possessing by simbang(심방) and villagers. So, Jejudo dangbonpuri is an extra epic poem in the world.

[Key-words] Jejudo dangbonpuri, the genealogy organization of dangbonpuri, regional identification, The village Myth, The oral history of the village.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에 대한 토론

강정식(제주대)

전체적인 내용은 지당한 말이어서 두루 새겨듣고자 한다. 당신본풀이를 연구하자면 자료에 압도당하기 쉬운데 이처럼 많은 자료를 휘어잡고 논의를 진행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다. 큰 걸음으로 달려나가는데 세세한 것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아나 아쉬운 대목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해를 구한다.

1.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본풀이들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여 대표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특이하기에 논의하기 좋은 요건을 많이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표성이 없기에 일반적인 전승 맥락에서 벗어나 있어 전통이나 원형 등을 거론하기 어렵고 특히 정체성을 논의하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중문본향당본풀이>는 신의 계보상으로는 한라산계, 서사유형상으로는 송당계에 속하는 자료이다. 김명선 구연본을 자료로 택해서 더욱 문제가 된다. 특이하게도 이 자료는 2세대 주인공이 여성이며, 자청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다른 이본에서는 모두 궤눼깃또 혹은 문국성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 제시된다. 김명선 심방이 스스로 구연하는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를 달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단히 특이한 자료이고 단골들에게는 수용되기 어려운 자료이다. <광정당본풀이>는 신의 계보상으로는 송당계, 서사유형상으로는 한라산계에 속하는 자료이다. 한라산계 전승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송당계 계보의 본풀이라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만큼 대표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말이다. <서귀포본향당본풀이>는 계보상으로 한라산계이나 서사유형상으로는 한라산계와 유사성이 없다. 중요한 사실은 지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지극히 특수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운데 셋이 이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니, 좋은 논의를 뒷받침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2. 신화 전승권을 '○○신화계구역'이라고 해서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북동부는 송당계, 동남부는 7·8일계, 북서부는 축·술일계 신화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한 영역인 남서부 지역은 하예7일당신화계와 호근7일당신화계 구역을 함께 설정하였다. 한 구역에 두 계보의 신화 구역을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남부지역에 분포하는 이른바 한라산계 신화에 대해서는 따로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송당계 권역은 실제로는 제주시, 북제주군 조천읍과 구좌읍, 남제주군 표선면까지 이른다. 그러다보니 토산7·8일당신화계와 겹친다. 이렇게 전승권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전승권을 다시 세분하는 것은 어떠한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돌아가며 다시 정리하면, '①송당계→②송당계/8일당계→③8일·7일당계→④한라산계/8일·7일당계→⑤한라산계/7일당계→⑥7일당계→⑦축일·술일당계(→①송당계)'가 될 듯하다. ⑤는 호근7일당신화계 구역에 해당한다. ⑥은 예래7일당신화계 구역에 해당한다. 새롭게 설정된 것은 ②, ④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승권이 겹치는 양상이 고려되고, 한라산계의 전승권 문제도 처리되었다. 한라산계만 배타적인 전승권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도 해명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발표자는 당신앙은 다면적이고 중층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신앙의 분포도 그러한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상층부에는 송당계와 한라산계, 하층부에 7일, 8일계, 축·술일계

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우세한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겠는가.

3. 해석의 문제이다. 발표자가 서두(1~2쪽)에 제시한 <하도리큰당본풀이>는 본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감안하여 읽어야 할 자료이다. 도걸호도집사와 여래불도, 삼신할머님 등이 모두 같은 신격의 이칭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도걸호도집사는 남성신이고 여래불도나 삼신할머님과는 다른 존재이다. 다른 자료에서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도걸호도집사는 하도리에 이르러 여래불도와 남녀신의 만남을 이루고 난 뒤에 좌정하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흉험을 주고 백발 노장의 모습으로 단골들에게 나타난다. 백발 노장의 정체는 여기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결코 사제자일 수 없는 존재이다. 백발노장은 하도리 큰당의 主神으로 산신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기에 본래 하도본향당은 다른 마을의 본향당처럼 본향당의 일반적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산육 기능이 강화되면서 여성신앙 중심으로 신앙에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도걸호도집사의 존재가 흐릿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향당의 主神이 사제자로까지 대접받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 셈이다. 이것은 전승상의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남성신의 본풀이가 온전히 여성신의 본풀이로 재편된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발표자는 백발 노장이 없었다면 신의 재앙과 인간의 공론이 중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렇지 않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다른 마을에서는 중재자가 없어도 신과 인간이 타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논의한 '(마)새로 씌어지는 구전 역사' 대목에서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구전 역사까지 포함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본풀이에 해당 구전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위 '살아있는' 본풀이로서는 부적격한 상황임이 지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4. 용어 문제다. <송당리당본풀이>에서 보듯 '○○리본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 이것은 '마을명+당본풀이' 혹은 '마을+당+본풀이' 형태이다. 이것은 발표자가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 명명법이다. 송당리를 예로 들면 송당리에도 본향당, 사라홀당, 산신당 등 당이 여럿이다. 따라서 '송당리당본풀이'라고 하면 송당리에 있는 모든 신당의 본풀이를 통칭하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지역명+당명+본풀이'로 용어를 정리해야 할 듯 하다. 바로 잡으면 '송당+본향당+본풀이'가 되겠다.

5. 다음 몇 가지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발표문의 순서대로 제시한다.

1) 난ᄃᆞ리여 각시당과 현재 요왕굿을 하는 각시당은 별개다. 난ᄃᆞ리여는 문주란 자생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토끼섬까지 이어진 바위 줄기를 말한다. 도걸로도집사가 숨구멍을 막은 것은 난ᄃᆞ리여이고, 당굿을 할 때 상호 연계된 제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갯ᄀᆞᆺ 용녀부인을 모시는 해안도로변 각시당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2) 계보를 제시한 표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먼저 거론한다. 남제주군 지역 부모신 가운데 남신은 없다고 하고 여신은 '중문이 제7남(남신) 천지천왕어멍국족달이대서부인'이라고 하였다. '중문이 제7남(남신)'이 없다고 한 남신이므로 빈칸을 바로 채울 수 있다. 다른 자료에서는 '열리하로산'으로 제시된다. 남신(아들)의 계보 칸을 여신(딸)의 계보로 채운 까닭도 납득하기 어렵다. 괄호 속에 여신이라고 밝히지 않은 '호근물서천밭으덟애기', '단ᄆᆞ을청하원을왕국' 등도 여신으로 보아야 한다. '통천이고도세미일뤠중조'라고 한 것은 '통천이도고세미일뤠중조'라고 해야 할 뿐더러 구연자의 착오로 '감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 '통천이'라고 하게 된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윈쪽 북제주군 남신(아들)의 계보에 제시된 신명도 정리가 필요하다. '대정광정당'은 '대정에 있는 광정당'을 의미하고, '내왓당광광영당'은 '내왓당'과

'광영당'을 의미한다. '-과'를 의미하는 '광'을 두 신당 이름 사이에 둠으로써 이해를 어렵게 한다. '삼물이서당오라서'에서 '삼물'은 三門이겠고 '이서당'은 신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라서'는 신명이 아니라 '와서(來)'의 뜻일 뿐이다. '하귀허릿공'이라고 한 것은 '차귀허릿공'의 오기인 듯하다.

3) 예래7일당신화계 계보에 대해서 '윗대의 하로산계통이 아니고 7번째, 7자매의 일뢰중자라고 해서 일뤠신의 계보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한 데 의문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7번째인 부모신에게서 태어나지도 않고, 7자매가 아닌 경우에도 일뢰중저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일뤠중저의 징표는 공통적으로 일곱 딸을 낳으며 그들이 '일곱아기단마을청'이라고 하는 아기신으로 함께 제향되는 데 있다. 이러한 속성이 이 지역에 이르러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서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반드시 일곱 번째인 것도 아니고 딸들의 계보가 반드시 일곱 자매로 짜이는 것도 아니다.

발표자는 신의 계보, 본풀이의 유형, 당의 분포를 관련지어 제주도 당신본풀이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론자가 찬찬히 읽지 못해서 그런지 셋의 관련성이 그다지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자료 분석과 그에 따른 결론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책임을 미루어 본다. 계보나 본풀이 유형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가다듬으면 소기의 성과를 쉽사리 얻게 되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발표자의 문제의식에 상응하는 토론이 되지 못한 데 대하여 용서를 구한다.